<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재벌의 축소판 석유화학은?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 우리는 21세기를 어떠한 자세로 맞을 것인가? 동서양이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2000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것이다. 20세기의 지난했던 일들을 과거사로 묻어버림으로써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19세기말의 폭풍을 넘어서지 못하고, 20세기 초반에 나라를 빼앗기는 국난을 당했으며,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6.25까지 겪어야 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경제가 재건되는가 싶더니 일본식 유신망령이 온나라를 뒤덮었고, 뒤를 이어 반란군들이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선량한 양민을 학살하는 광주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잊고 싶은,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20세기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제5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 갑시다」는 왜곡과 굴절로 점철된 20세기를 청산하되 20세기를 거울삼아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자는 당부이고,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평소의 철학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중산-서민층 중심의 정치와 경제발전을 유도하면서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혁파하겠다는 정책기조 천명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나서고,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수십조원의 부채를 담보로 국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한국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지극히 공염불임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재벌단체를 위시한 일부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재벌의 순기능을 무시한다거나, IMF체제를 극복하는데는 재벌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그것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재벌을 해체할 경우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5대 재벌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재벌을 위주로 경제를 운용한 결과가 바로 IMF체제가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재벌을 규제하고 해체할 경우 R&D 투자를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허구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도, 전자도, 철강도, 석유화학도 아닌 생명공학이다. 신약을 개발하고 기술을 수출하는 곳은 바로 대기업이 아니라 한미약품을 비롯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시장이 재벌구조를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재벌집단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재벌들의 무차별적인 차입경영이 설비 과잉투자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IMF를 불러들였음을 그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석유화학은 어떠한가. 석유화학은 한국재벌의 축소판으로서 무차별적인 확장욕이 난립하는 본거지로 자리하고 있다. 바로 5대 재벌인 현대, 삼성, LG, SK를 위시해 대림, 한화, 롯데가 주축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무차별적인 신증설에 따라 공급과잉률이 100%를 훨씬 넘고 있음은 물론 내부자 거래가 판을 치고 있으며, 과잉투자로 인한 경영악화를 만회한답시고 가격과 수급선을 담합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설비투자를 이유로 달러를 물쓰듯 사용해 IMF를 불러들이고서도 「반성」의 빛은 전혀 없고, 수출가격까지 담합해 중국에서는 이미 막나니로 취급받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미국, EU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대림과 한화는 가당치도 않은 자발적 빅딜을 외치고, 현대와 삼성은 대산단지 빅딜을 담보로 국민세금으로 부채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사업악화에 따른 부채가 아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각각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는 「꿀꺽부채」를 뱉어낼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석유화학은 개혁의 첫번째 대상이고, 화학저널은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개혁의 선두에 자리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8/23>